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공의를 따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美오하이오주...“태아 심장 박동 들리면 낙태 안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규제법 통과돼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오하이오주 의회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엄격한 낙태규제법을 통과시켰다고 7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후부터는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강간, 근친상간 등의 예외조항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만 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한 임신도 오하이오에서는 낙태가 금지된다. 또한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하거나 심장박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들은 최고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수년 전부터 고려돼 왔지만 번번이 오하이오 주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만약 이 법이 케이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입법화될 경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규제법이 된다. 아칸소 주의 경우, 올해 초 12주 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 연방 정부는 지난 1973년 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신 말기(22~24주)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오하이오의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여성 권익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공석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낙태 반대 판사를 임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GNPNEWS]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시편 40:10)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따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기도 | 살아계신 하나님. 엄청난 규모의 살인이 낙태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심장박동만으로 태아도 사람임을 인정케 하는 법을 통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 북탄의 한 성도 집에서

제공: WMM

고요한 시골, 오지 산간 마을의 한 성도 집의 낡은 창가에 조그만 종 모양의 장식물이 매달려 있다. 그 안에 작은 두 사람의 형상이 마치 요셉과 마리아 같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홀연히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한다. 처녀인 마리아가 믿기지 않는 듯 되물었다. 천사는 하

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전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마리아는 말씀을 믿어 순종한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마리아의 고백이 담긴 한 노래 가사를 옮겨본다.

“마리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 당신의 아기가 / 모든 창조의 지배자인 것을 / 마리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 당신의 아기가

/ 어느 날 세계를 지배할 것을 / 당신의 아기가 당신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온 것을 / 당신의 아기가 / 당신을 구할 것을 알고 있었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마태복음 1:23)”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5)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모든 인생에게 항상 두 가지 소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먼저 당신이 들어야 할 나쁜 소식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인가?’라

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혀 거룩하지 못한 당신과 절대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다른 좋은 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거룩하지 못한 당신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당신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당신이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고 당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을 믿으면 당신은 지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나쁜 소식을 당신의 마지막 소식으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두 번째 좋은 소식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당

신이 지은 죄값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좋은 소식(복음)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오래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늦은 답장은 안 됩니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GNPNEWS]



INSIDE

02 뉴스 | 세계 위클리프 성경번역가들 심각한 박해에 기도요청

03 기획 | 이주민 선교 “우리 곁에 와 있는 땅끝을 섬긴다”

05 인터뷰 | 편해윤 목사 “‘일만 명’ 교회의 꿈이 ‘일 명만’으로 바뀌었어요”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부조리한 어둠이 걷힐 수 있는 유일한 길

08 광고 | 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

세계

위클리프 성경번역가들 심각한 박해에 기도요청



세계 76개국에서 31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위클리프 연합이 박해받고 있는 성경번역가들에 대한 기도를 당부했다고 8일 데일리굿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는 신변 안전상의 이유로 박해받는 번역가들의 신상은 공개하

지 않았다. 위클리프연합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인 브루스 스미스는 “매주 박해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보고받는다. 많은 국가에서 성경번역이 영적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언어로 성경 번역을 시도할 때마다 많은 장애에 부딪힌다.”는 공

식 성명을 발표했다. 스미스 회장은 또 “성경번역가들은 이유 없이 체포되거나 수감되고, 잔인한 고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폭력에 희생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는 번역가의 가족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인도주의 기구 월드헬프(World Help)의 설립자 버논 브루어 박사는 “지금처럼 크리스천 박해가 심각했던 적은 역사상 없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세기 동안 종교를 이유로 순교한 사람이 1900년간 순교한 사람보다 많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박해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위클리프연합은 현재 400개의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계획에 있다. [GNPNEWS]

한국

‘청년을 진리로 세우라’ 청년복음캠프 2017년초 열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복음의 진리로 다시 일으

켜 세우고자 하는 ‘청년복음캠프’가 2017년 신년초에 열린다. ‘청년,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 캠프는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품으로’라는 비전으로 365일 집회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천보산민족기도원(경기도 남양주 별내동)에서 1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진행된다. 홍완진 목사(천보산민족기도원 담임)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 기도원에서 청년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집회가 여러 단체와 연합

하여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에는 임성택 목사(전 그리스도대학교 총장), 청년사역단체 ‘청년에’, 청년교회 어노인팅교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캠프의 주강사로는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며, 강명식 교수, 조정민 목사, 강철호 목사, 강산 목사, 장익중 목사 등이 주제 강의를 맡는다. 회비는 5만원. 문의 ☎ 031-528-8081(천보산민족기도원 www.cheonbo.org) 청년복음캠프(youthlove4you.modoo.at) [GNPNEWS]

한국

다음세대 위한 청소년 복음수련회, 복음캠프 1~2월 잇따라 열려

올 겨울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복음수련회와 캠프가 잇따라 열린다. 제15기 청소년복음수련회는 문광교회(최종덕 목사, 경기도 광주시)에서 2017년 1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2003년생(중3)부터 1998년생(고3)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열린다. 훈련생, 섬김이 접수기간은 12월 21일(수)까지. 섬김이 대상은 청소년

복음수련회와 복음캠프,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 수료자 등이다. 문의 ☎ 010-3380-5781 이메일: nggn777@naver.com, 웹사이트 cafe.naver.com/youthgnr 또한 제9기 청소년복음캠프가 주관하는 청소년 복음캠프도 2017년 2월 13일(월)부터 17(금)일까지 동일한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원서접수 기간은 2017년 1월 10일까지이다. 문의 ☎ 010-

5146-4641 웹사이트 cafe.naver.com/goodnewsprayer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1.27 ~ 12.8)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고령사회 일본서 간병 살인·자살 비극으로 4년간 189명 사망

고령사회 일본에서 최근 4년여간 간병을 받는 60세 이상 노인이 자살하거나 살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사건이 17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 발표와 법원 판결, 연구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사건을 집계한 결과 이런 사건 179건이 벌어져 189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 없이 연장되는 생명은 본질적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간병을 받는 노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여객기 참사 71명 사망...“연료 부족 때문”

브라질 프로축구팀 선수 등 71명이 사망한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연료 부족 때문으로 드러나면서 브라질 전역을 휩쓸고 있는 팬들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콜롬비아 항공당국이 사고 여객기의 연료탱크가 텅 비었음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기사를 통해 접합니다. 사고를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길과 진리요 참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대 총학생회장에게 동성애자 신학생 당선돼

동성애자 동아리에서 활동한 신학과 마태영씨가 연세대 제2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86.9%를 얻어 총학생회장에게 당선됐다고 30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총학생회장이 당선된 것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이후 두 번째다. 선교사가 설립한 연세대에서 동성애 옹호 활동을 했던 신학생이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다. 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대학에서조차 자신의 옳음과 시대의 가치가 진리의 잣대보다 더욱 인정받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이들에게 들려주시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여러 석음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멕시코 남부 시신 32구 발견...마약조직 간 폭력 사건 추정

휴양지로 유명한 멕시코 남부 게레로주 아카풀코의 한 산간지대에서 32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25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신 37구 이외에도 군경은 비밀 매장터에서 냉장 보관함에 담긴 절단된 머리 9점을 발견했다. 이 지역은 마약 조직이 세력 다툼을 진행하는 지역으로 당국은 이번 사건을 마약조직간 폭력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원형을 잃어버리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욱 악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길 강청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12월 3주 ~ 12월 4주

- | | |
|-------------------------------------|---|
| 12월 3주(12.19~12.24) | (김**) 010-7791-4384 |
| 12.19~23(07시~23시) | 12.29~30(07시~19시) |
|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 010-7439-7020 | ▶전북 전주 / 전주시향교회 (정**) 010-8295-6889 |
| 12.22~23(06시~18시) | 12.30(08시~20시) |
| ▶전북 전주 / 전주사론교회 (진**) 010-2638-1440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
| 12.23(08시~20시) |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 |
| 12월 4주(12.26~12.31) | 기도참여 문의 |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

기획 이주민 선교

이주민 선교, “우리 곁에 와 있는 땅끝을 섬긴다”

이주민 사역, 한국 교회가 놓칠 수 없는 영역

최근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즉 이주민 수가 171만 명을 넘어 국내 전체인구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은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이며, 거주 목적은 근로와 가족 형성이 가장 많았다.

타종교 및 무신론 환경에서 살다가 국내에 들어온 대부분의 이주민은 한국 교회가 놓칠 수 없는 황금어장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하신 그 땅끝이 바로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중요한 결과인 교회개척이 이주민선교에서 각 종족을 대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자료는 전철환 선교사(한국외국인선교회 대표)가 기간지 한국선교KMQ 2016년 겨울호를 통해 발표한 내용과 그동안 본지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편집자>

몽골, 이주민 선교는 성숙기

몽골은 구(舊)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의 영향을 받아 1988년 몽골판 페레스트로이카라 할 수 있는 신철렐 정책으로 서구 사회에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는 이 무렵, 본격적으로 몽골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으며, 몽골인들도 새로운 삶을 찾아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90년대 후반 들어 몽골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역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디아스포라 몽골 네트워크(DMN) 사무총장 이해동 목사는 국내 이주민(디아스포라) 사역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본국으로 귀국하는 몽골인뿐 아니라 모든 언어권 디아스포라들이 동일하게 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는 귀국한 이주민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뿐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목사는 몽골 국내 사역의 역사를 태동기(1996~2000), 영적 성장기(2001~2007), 표출기(2008~2011), 성숙기(2012~현재)로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태동기에는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 개척된 교회에 귀국한 몽골 성도들은 손님 같은 교회 방문자였다. 한국 교회에서 주로 도움만 받던 경험을 가진 이들은 귀국한 이후,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떠났다.

영적 성장기에는 귀국한 몽골 성도들이 한국인과 협력하여 직접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표출기 이후부터는 독립적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시기이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디아스포라 9명을 중심으로 울란바토르에 개척된 야빙 탈라흐(생명의 빵)교회도 그중의 하나다. 이 교회는 한국 교회의 후원 없이 교회가 개척되어 의미가 더욱 깊다.

2014년 말 몽골 전체의 교회는 470여 개에 달한다. 이중 귀국한 몽골성도들이 세운 교회는 30여 개로 파악된다.

필리핀 이주민 성도들이 국내외에 교회개척

국내에서 필리핀 사역을 하는 단체는 103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연합회는 없다. 이는 대부분 필리핀 국적의 사역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역하는 필리핀 목사와 사역자들 간의 모임이 시작되었지만 30명 미만의 모임으로 그치고 있다. 많은 필리핀 사역자들 또한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풀타임 사역이 쉽지 않다. 예배 공동체가 50여 명 미만의 교회가 대부분이다.

한 필리핀 목회자는 현지에서 한국인 목회자를 만나 한국에 와 있는 자국 근로자의 상황을 듣고 한국에 선교사로 입국하기도 했다. 세살이라는 이 필리핀 목회자는 필리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5년 정도 전도, 제자훈련, 신학훈련을 주관하기도 했다.

세살 목사를 지원한 한국 측 교회는 필리핀 이주민들이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식사 봉사, 차량 봉사 등으로 섬기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사역이 장기화하면서 한인 성도들과 갈등이 생겨, 이주민교회는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게 됐다.

현재 이러한 사역의 열매로 현재 필리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배공동체가 안산, 안성, 시화, 청주 등 4개 지역에 세워졌다.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은 이주민들이 귀국하여 필리핀에 1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 이들 중 몇은 대만에 가서 4개 교회를, 마카오, 이탈리아, 홍콩에도 각각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살 목사는 자국민 성도들을 철저히 신앙으로 훈련하여 목회자 정도의 신앙으로 끌어올린다. 귀국한 성도는 자신이 다닐 교회는 자신이 세우도록 자생적 교회로 키운다. 그 후, 세살 목사는 교회가 지속되도록 정기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여 이들을 격려한다.

또 한국외국인선교회가 섬기는 필리핀 공동체도 있다. 이곳은 필리핀 목회자 에넬 칼라자 목사와 협력해 필리핀 근로자들을 양육, 이중 20여 명은 귀국하여 자신들의 고향교회와 해외 다른 나라에서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베트남 이주민 사역

한국 성도 가운데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이 지난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이들에게 아픔을 안겨준 국가라는 마음의 부담도 작용하고 있는듯 하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은 전쟁을 극복하고 일어난 국가라는 차원에서 과거의 부정적 감정보다는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연유로 베트남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의 접촉점이 쉽게 형성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민이 그렇듯 베트남 이주민 역시 경

이후, 교회를 세우고 현지 교회를 섬기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7년 전, 귀국한 베트남 성도들을 통해 개척된 베트남 편흐영 진리교회의 이야기는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 근로자로 온 ‘웁웁 득 뒤’ 형제는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 암 투병 과정에서 채00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 후에 이 형제를 통해 부모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2009년 베트남에 귀국한 그는 부모님의 집 2층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어지는 편이다. 명절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연합 수련회를 열고 전도와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 경기 지역의 사역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신학교육을 연계해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타이미션네트워크 회장이었던 홍광표 선교사는 2006년 경기도 안산에 새생명 태국인교회를 개척함과 동시에 쉼터를 운영했다. 이 쉼터는 태국인 근로자들의 기숙사 역할을 하면서 아침과 저녁 기도회를 통해 신앙 훈련을 하는 좋은 장소가 되었다. 홍 선교사는 귀국 성도들을 통해 현지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했고, 이들과 함께 철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쉼터 운영과 식사비는 태국인 근로자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훈련하는 동안 교회 개척에 대한 생명력을 넣어주고,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바리스타, 베이커리, 비누 공예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통해 귀국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0년 태국 방콕에 새생명교회 비전센터를 설립, 다음 해에는 새생명 랍성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3년~5년간 훈련받은 세 명의 태국인 전도사에게 목회와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또한 2010년 이후 국내의 한 선교단체가 태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한 복음수련회를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된 몇 명의 태국 이주민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중 빼야 형제는 이미 태국에 들어가 교회를 세워, 현지인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주민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는 두왕찬 형제는 주일에는 자신의 가정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개척,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두왕찬 형제는 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수련회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태국에 귀국하면 고향 마을에 교회를 개척할 계획이다. [GNPNEWS]



▶ 태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집회 현장

제적 필요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다는 점에서 종교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베트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역은 지난 1994년 새문안교회가 추수감사절에 베트남 근로자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라고 알려져 있다. 다음해인 1995년 5월, 희년선교회의 채00 선교사가 뒤를 이어 사역을 이어갔다. 그 이후 수도권 교회의 단체들이 베트남 사역을 시작했다. 베트남 사역자연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베트남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와 단체는 40여 개에 이른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육받은 이주민들이 본국에 돌아간

있던 땀 목사와 함께 마약 치유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다. 그 후 부모님과 한국 성도들의 헌신적 봉헌을 통해 100평 땅에 2층 교회까지 짓게 됐다. 가정 교회에서 출발, 교회 헌당까지 이어진 것이다.

활발한 태국 이주민들의 교회개척

태국 이주민 선교는 태국인 선교협의회와 7~8개 교회의 연합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03년까지 이어져 왔다. 그 후 2004년 타이미션네트워크를 통해 16여개 교회가 연합하게 되었다. 2016년 현재는 19개 교회와 연합해 태국 선교연합 모임을 갖고 있다. 태국 사역자모임은 비교적 잘 이



선교 통신

‘그리스도가 전부인 정치인, 미 차기 부통령 ‘마이크 펜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밝히며 미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가져올 정치인이 미국 차기 부통령으로 선출됐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댄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그 주역이라고 케어메리칸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금 저는 이곳에 매우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에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8일 새벽,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가 확정되자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펜스는 선거기간 중 자신을 “저는 기독교인이고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원입니다. 이 순서대로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견해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임을 밝힌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정치가로 알려져 온 그는 아일랜드 이민 가정 출신으로 태어난 유년시절 가톨릭 신앙을 가졌

“ 그는 선거 유세 때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부정적 캠페인을 펼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 나는 그 죄인들 중에 죄수” 라고 그는 말했다. ”



다. 하지만 대학(인디애나 하노버 칼리지)에 들어가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십자가 목걸이에 관심을 갖는 펜스에게 한 선배가 건넨 말은 그 생애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마이크, 기억해. 너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 전에 네 마음에 걸어야 한다.”

얼마 후 켄터키에서 열린 기독교 음악축제에 참석한 펜스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신앙고백을 했다. 펜

스는 “당시 내 가슴은 감사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고 밝혔다.

펜스는 2001년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2년 인디애나 주지사가 되었다. 그는 선거 유세 때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부정적 캠페인을 펼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 나는 그 죄인들 중에 죄수”라고 답했다. 의원 시절 그는 술이 나오는 자리에는 아내 없

이 참석하지 않았고, 동료 의원들은 “그가 나타나면 우리의 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예수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

펜스의 신앙은 그가 하원의원 및 주지사로 재임하며 추진한 정책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그는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추진했다. 또 다온증후군과 같은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친생명 정책을 펼쳤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종교의 자유 법안’에 서명하는 등 반동성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펜스 주지사에 대해 평론가들은 “그는 단지 옷 소매에 신앙을 매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조끼를 아예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 기간 중 선거광고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는 “기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 최선의 희망이라고 말한 아브라함 링컨의 말은 여전히 사실”이라며 “미국이 다시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7장 14절을 인용해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백성들이 겸비해서 기도하면 그가 하늘에서 듣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GNPNEWS]



선교 통신

“너무 멀리 보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브레이미’ 지역을 떠나기 전 그 주위를 한번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와디(건조 지역에 있는 간헐하천) 알 자지라’에 갔다 왔습니다. 길을 정확히 몰라 여러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갔습니다. 마침내 도로표지판이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비포장도로로 5km 남았다는 표시를 보며 반가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데 주위가 메말라 어느 곳에도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길이라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4륜구동차가 아니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비탈진 고개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가기 힘들 것 같고, ‘가봐야 뭐 있겠어.’하는 마음이 들어 그냥 돌아 나오기로 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승용차를 타고 온 한 현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희가 그곳을 보고 내려오는 길인 줄 알고, “인터넷에서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보고 왔다.”며 길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차로는 갈 수 없어요.”라고 말하고는 지나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아까 거기서 차를 두



고 걸어서 가볼까요?”하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마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와디에 물이 많은지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많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중간에 있는 고개까지 올라가 차를 세우고, 비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보았을 때 너무 비탈이라고 느껴졌던 길은 정작 와보니 생각만큼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보면 어렵고 힘들어 갈 수 없을 것 같은 길도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가기 시작하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

면서 동시에 ‘이 땅이 언제 복음화가 될까?’하고 생각하며 막막하기만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루하루 가다 보면 복음이 이 땅을 정복하리라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 될 때 주님이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 같은 고개를 넘으니 마침내 와디가 나왔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주위에 종려나무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치는 아

“ 때로는 멀리서 보면 어렵고 힘들어 갈 수 없을 것 같은 길도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가기 시작하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

니었지만 물이 귀한 이곳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험하고, 위험한 길을 갈 때 웬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 나면 어쩌지? 혹시 나쁜 무리들을 만나면?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은 순종만 하면 그분이 도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 그분과 동행하는 길임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GNPNEWS]

O국 O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6. 11. 24 ~ 12. 7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김성훈 김은영 노유리 박숙자 서범일 안은경 오현문 이란영 이정희 이지영 이현희 임희순 정영숙 정은채 조경미 조명숙 조형광 주유순 최근희 표순호 한 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높은뜻하늘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서경산업 시은좌교회 양덕원갈리교회 열방그루터기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키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소망의 복음(6)

어둠이 걷힐 수 있는 유일한 길

꿈이 간절하고 더 깊어지면 한(恨)이 된다. 한이 된 꿈은 운명이 된다. 이렇게 운명이 된 꿈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선택은 무의미해진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지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벧 1:20~21) 죽음마저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이유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다.

한이 된 꿈은 운명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벧 3:10~11) 당대의 그 누구보다 깊은 신앙의 체험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신학적 지식과,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顯現)을 목격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전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벧 3:12~14)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것이 제아

무리 어마어마한 축복과 체험과 능력이었는지라도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꾀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갔다.

거룩한 소원 경건한 열망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욥 2:28) 모든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심령 안에 성령이 부여되면 썩고 허망한 꿈들이 할례를 받는다. 죄인의 마음 가죽이 벗겨지면 하나님이 창세 전 원형(原形) 안에 부여 두셨던 하나님의 갈망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거룩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고, 잠시를 살아도 영원을 살고픈 영혼의 갈망이



분출된다. 본성을 거슬러 거룩한 소원과 경건한 열망이 불타오른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벧 2:13)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는다. 거리, 시간, 아픔이나 고통과 같은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왕에 부여 주셨던 경건의 열망에 불을 붙이시라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9~10)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 영혼의 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썩고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부조리한 어둠이 걷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2016.2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다림줄 (17)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 특별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저자로 유명한 복음주의 문화평론가인 에릭 메탁사스(사진)는 최근 데니스 컬럼에 인간의 특별함에 주목한 글을 썼다. 기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인간에게는 무언가 우주적인 특별함이 있다. 심지어 세속적인 미디어인 워싱턴포스트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유물론과 신다윈주의 세계관의 기본 원리들 중 하나는 인간이 어떤 방면으로든 특별하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다. 대신, 우리 인간은 겨우 우연한 사건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 사건이 어찌면 여러 번, 우주 어딘가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하버드 스미소니안 연구소의 천체물리학자 하워드 스미스의 주장은 다르다. 최근의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스미스는 빅뱅 우주론과 다른 별들 주변 행성

들의 천문학의 가장 극적인 발견 중 두 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인류를 우주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한 마디로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했다.

한 천체물리학자의 결론 ‘인간은 희귀하며 존귀하다’

그는 “우주는 무작위한 사고 덩어리라기보다는 생명체를 위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고 미세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인간 외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갖고 있는 설명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에 얼마나 많은 지적인 생명체가 있는가? 스미스는 그런 생명체는 아마도 전에 상상해 보았던 것보다 더 희귀할 것이라고 답한다. 또한 생명체는 매우 멀리 떨어진 우주에 있을 수도, 아니면 없을 수도 있으며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있었던 것 같다고 답한다.

‘생명체가 형성되고 지성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천문학적, 생물학적, 진화적으로 복합된 기회’는 극

히 작다. 은하계는 1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듯, 스미스가 말 한대로 우주의 광활함 안에서 우리는 아마도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같은 가정을 거쳐 스미스는 ‘인류와 우리의 행성 지구는 희귀하며 우주적으로 존귀하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설득한다.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으로 답했다.

나는 천체물리학자도 아니고 텔레비전에 출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2년 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비슷한 논쟁을 했다. 내가 쓴 것에 대해 전반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었던 반면 여전히 많은 비평가들은 ‘과학자로 가장했다.’고 나를 몹시 비난했다. 물론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단지 43년 동안 물리학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왔던 스미스의 말들 중에서 인용했고 우리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질문들을 했을 뿐이었다. 스미스는 다르지만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들을 한 것이었다.

2년 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천문학적 인 특별함에 대해 한 말을 거부하는 것은 과학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슬픈 유물론과 빈약한 세계관을 광신하는 것과는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Interview

<5면에 이어>

복음이 정말 실제되어야 하는 영역, 가정

- 교회에서 선교학교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2014년 겨울에 1기 복음선교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3기까지 왔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몇 주간의 강의와 해외아웃리치까지 매 기수마다 참 은혜가 많았어요. 특별히 올해에는 7월에 네팔을 다녀왔는데요.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현지인들에게 한 주간 복음을 나누는 복음학교를 가졌어요. 현지인만 44명이 복음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지체들도 있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내년 3월 6일에 다시 네팔에서 2기 복음학교를 하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또 준비하고 있고요. 3번째 복음선교학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주신 결론은 아웃리치마다 어떤 선교지이든 복음학교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게 되었어요. 이걸 정말 저희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자 영광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 정말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네요. 가족들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두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교회를

할 정도였으니 참 많이 어려웠죠.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도 많이 방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기도문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못된 거죠. 기독교라는 형식 속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실체가 되어야 할 영역은 정말 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첫째 딸은 문화예술선교사로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어느새 저의 동역자가 되어 있어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정 안에서도 맛보고 있죠.”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플랜B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달려가기 원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내 삶에 관통시키고, 이 복음이 전부 되는 일에 진력을 다 쏟는 것만 해도 제 인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고, 얻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이 있는 곳과 함께 연합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고 싶어요.” [GNPNEWS]

J.D.





선교는 꾸역꾸역 이겨내는 자리가 아니라 예비하는 자리

오직 나밖에 모르고 살다 영혼에 상처만 남은 내게 주님은 생명으로 찾아와 존재를 바꿔주셨다. 복음을 만나고 모든 것이 감사했다.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를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 훈련들을 통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가면서 나와 남편을 한마음이 되게 하셨다. 정해진 나라는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갈 수 있도록 선교훈련도 마쳤다. 간절함으로 기도한 후 열어주신 곳은 바로 파라과이였다.

처음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음에도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있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기후나 상황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떠나기 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며 은혜를 잊지 않도록 쉬지 않고 말씀해 주셨다.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온 터와 가진 물건들을 정리했다. 하나도 아

깝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면 마음이 벅차올랐다. 이렇게 마음을 부어주시니 짧은 시간이지만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2015년 11월, 파라과이로 떠났다.

4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열기는 밤에도 그칠 줄 몰랐고, 80~90%의 습도에 숨이 막혔다. 무방비 상태로 하루에도 수십 곳을 물어뜯는 모기와 벼룩과의 전쟁에도 어렵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고, 와 있다는 것만으로 감격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우리 부부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꿈만 같아서 매일 밤 자기 전 손을 꼭 잡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렸다.

마음 다한 예배 속에서 느낀 주님의 함께하심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잘할 수 있는 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저 주님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존재적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었다. 불안한 치안으로 솟아오르는 두려움. 그리고 ‘다름’ 속에서



제공: 김현의

어려운 마음들이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현지어 예배, 만날 수 없는 한국 사람들.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그저 우리 부부뿐이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계속되면서 은혜는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말씀을 보아도 마음과 입술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수없이 고백했지만 잠시 잊었던 ‘예배자’라는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났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셨다.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나아

갔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니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셨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자 신부이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셨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뿐 아니라 파라과이 영혼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질문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었다. 첫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부여졌다. 선교는 꾸역꾸역 이

겨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받으신 후, 계속되는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왔음을 전했다. 다른 문화와 언어로 오해도 있고 어려움이 될 때도 있었지만 생명 내어주신 사랑에 우리는 그저 사랑만하기로 작정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나눠주고 섬기며 진정한 행복을 누렸다.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한국에 돌아왔다. 선교지에서 그랬듯 이곳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분은 주님이시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갈 길임을 말씀해 주신다. 멋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드림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제 선교사로서의 긴 여정을 다시 준비한다. 보이지 않지만 더욱 선명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꿈을 꾸고자 한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다! [GNPNEWS]

김현의 집사(선한목자교회)



“기도해 주십시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백두산 산골에 있는 한 마을

이웃과 백두산 절경들이 시야에 나타났다. 풍우어린 한반도 오천년 세월을 침묵으로 품에 안은 백두산. 그 아름답고 웅장한 자태를 이렇게 마주하고 나니 가슴 한 끝이 자꾸 저러왔다. 본래는 하나였던 민족, 그러나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선 채 싸늘한 총칼을 서로에게 맞세우는 쓰라린 비극을 잉태하고야 말았다. 한 발, 두 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분단의 현실은 아픔으로 맺혀 왔다.

“아직도 더 가야만 되나?” 좁은 산길을 따라 2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들어왔기 때문인지 피곤이 몸을 누른다.

골짜기를 타고 산속으로 좀 더 들어가자 허름한 집 몇 채가 웅기 웅기 모여 있는 작은 동네가 눈앞에 펼쳐졌다. 바로 그때, 일행 중 한 사람이 다 쓰러져 가는 한 집을



▶ AIS 국제학교 학생들이 북한 교회를 위하여 만든 작품(출처: AIS)

가리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다 왔어요. 여기입니다.”

‘이 누추한 모습의 오막살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구나.’ 집안으로 들어서자 한 소녀가 우리 일행을 맞아 방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외국인이나 부유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이 소녀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를 그곳에서 들었다.

할머니 복음 전도자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래,

공산당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 왔다. 이를 견디다 못한 몇몇 지체들은 신앙을 버리고 주의 곁을 떠나갔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고난에 굴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은밀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에는 백두산 깊은 산골짜기에서 숨어 울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그 할머니들은 태어나서 주님을 모른 채 그러저러 살다가 때가 되면 어둠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마

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에 나서 이 산골을 복음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드러내놓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찬란히 살아계셨다.

산골 소녀의 편지

떠나야 할 시간이 되어 우리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소녀는 허리춤에서 재빨리 편지 한 장을 꺼내어 내 손에 쥐어 주었다. “가서 읽으세요.”

기약 없는 이별을 나누고 헤어져 나오는 발길들엔 아쉬운 마음들이 자꾸 묻어났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펼쳐 본 편지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결연한 의지로 믿음의 도를 끝까지 붙잡겠다는 27명의 이름과 나이가 차곡차곡 적혀 있었다. 갑자기 뜨거운 울음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주님의 회심자

스펠전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삶의 일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이 저의 개종자인지는 몰라도 주님의 개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주님의 회심자라면 그렇게 술에 취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는 ‘속이는 자’에 불과합니다. [GNPNEWS]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공연

‘덜으려는 자 그러나 펼치려는 자’

THE BOOK

성경이 된 사람들

뮤지컬 더북

2017년 1월 2일 - 12월 30일
대학로 열린극장 (혜화역 4번 출구)

평일 오후 8시 / 토, 공휴일 오후 3, 7시 / 설, 추석 오후 3시 * 일요일 공연 없음
예약 musicalthebook.modoo.at | 문의 010 2648 8255

주최  서울광염교회, 300-롤라드 | 주관  Artree | 후원  복음기도동맹 | 협찬  maybe one  뮤지컬더북  검색

12partners  SHINW  선한목자교회  신동교회  WASSET CTS  광명교회  팻머스  푸른나무교회  기도교  충신교회  한국중앙교회  서울광염교회